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 議 會 議 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0年12月1日(金) 午前 11時00分 開式

第107回 鐘路區議會(定例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 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業務擔當主事 張慶洙)

(11時00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第107回 鐘路區議會 定例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친애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직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구정개혁과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鄭興鎮 區廳長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의정활동 계획을 준비하는 뜻깊은 제107회 定例會가 개최되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로서, 집행부 감시자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임시회와 같은 회기를 통하여 조례안, 현안사항 등 주민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구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정집행의 현장확인과 주민의 진정한 뜻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와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 그랑프리 고객센터” 대상 수상과 “서울시 전화친절도 우수구”, “민원서비스 최우수구” 등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절한 자치구청”으로 위 부기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어제 있었던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의 ISO인증 취득 영예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첫해 경진년을 마감하여야 하는 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뜻깊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그 동안 불신과 적대로 일관하던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길로 접어들어 8·15광복절을 맞아 감격적인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한 끊겼던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는 역사적인 경의선 복원과 도로 착공식이 있었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시드니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손을 맞잡은 동시 입장과 공동응원 등의 모습들이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한 화해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金大中 大統領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온 겨레의 영예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폭등, 세계경제의 불안, 구조조정 지연과 환율비상 등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 각종 사회 이익집단들의 시위와 집단행동 등의 사회불안과 부실대기업 퇴출, 중소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자 급증 등은 3년 전 IMF사태가 재발하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란 우려가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선 “먹고 쓰고 보자”는 과소비 만연과 일부 계층의 사치풍조 및 사회기강 해이 등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의 현 상황을 정부나 누구의 탓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IMF 신탁통치”라는 부끄

러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근검·절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매일수록 말은바 소임을 다하는 참 공직자상을 보여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현행관계법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제소권과 선별처분 등의 실제 권한을 주고 있는 반면에 자치단체장을 감시·견제하여야 할 의회에 대해서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조례제정권의 제한, 예산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및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임명 등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에 있어서는 기간과 범위의 제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의 한계, 사후관리 등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과 정보, 집행력을 갖춘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의 비전문가이면서 명예직 신분인 우리 의원이 감시·통제를 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이 개선되어야만 하고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지방의원의 육성과 활발한 의정활동 보장 등을 위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연수·교육과 해외시찰 기회 등을 넓혀 지방의원의 능력을 제고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조속히 관철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 동안 실시하게 될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약 1,5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등의 안전을 처리하게 되며 이를 끝으로 올해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좀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안건 중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 야 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보다 나빠지고 모든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간을 이루는 세입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과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고 신속·정확한 자료제시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호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정례회는 겨울철 환절기에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게 됨으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제3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맞이하게 되고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07회 종로구의회 定例會 開會式을 마치겠습니다.

(11時20分 閉式)

○出席議員 19人

○出席關係公務員

- | | |
|---------|-----|
| 區 廳 長 | 鄭興鎭 |
| 副 區 廳 長 | 盧張鐸 |
| 行政管理局長 | 金賢植 |
| 財 務 局 長 | 童連浩 |
| 生活福祉局長 | 李炳滿 |
| 都市管理局長 | 河徹昇 |
| 保 健 所 長 | 李星世 |

○出席議員數 19人

